새해를 맞이하며

조국 해방 60주년

사업회 부이사장 **박 석 무**
(재)5·18기념재단 이사장

올해는 을유(乙酉), 해방 60주년을 맞았다. 그때 어렴풋이 기억되는 8·15 무렵이 벌써 60년이라니 감고지정(感古之情)을 가눌 길이 없다. 억지로 세운 단독정부는 끝내 6·25를 불러 동족상잔의 참극은 얼마나 큰 상처이던가. 자유당 독재 12년, 박정희 독재 18년, 그리고 계속되던 총칼의 독재에 우리 국민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던가.

우리는 이제 진정한 해방을 맞았는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수구 기득권층으로부터의 해방, 남북분단으로부터의 해방,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가. 대답은 역시 '아니다' 이다. 우리 기념사업회는 제2기 이사회가 해방의 환갑해로부터 시작된다.

진정한 해방을 맞도록 모든 국민과 함께 손을 잡고 부지런히 가야 한다. 해방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다.

즐거운 한 해

사업회 부이사장 **송 기 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2002년 봄 예상 밖의 소식이 우리를 들뜨게 했었다. 공천 경쟁에 민주화 운동의 일꾼 한명이 약진하고 있어서였다.

초여름에는 숏 골인이 붉은 악마의 물결을 출렁이게 하였고, '대 ~한민국' 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대구경기장에서는 미국과의 시합을 보기 위해 열네 시간을 소모하면서도 천만다행으로 1 : 1로 비겨 스케이팅선수 오노의 부정 심판을 풍자한 '오노' 식 골 세레모니가 전 국민들을 통쾌하게 하였으며, 가을에는 아시안게임이 성숙된 시민협조에다 줄 금메달을 선물해 주었는가하면

겨울에는 대미를 장식하는 대선의 결과로 환호했던 한 해가 그것이다.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세월도 만난다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즐거운 해였다.

70년대 목숨을 던지며 항거했던 반독재-인권유린에의 항거나 사람들이 살만한 사회를 위하여 산화한 동지들을 생각하면 이런 세상도 보지 못하고 가버린 것이 안쓰럽기만 하다.

물론 진행형이다. 통일이 그리고 평등-화합의 과제가 있다. 그러나 70년대에 희망했던 수준 그 이상의 성과를 우리는 향유하고 있는 만큼, 세상은 빠르게 나아지고 있다. 을유년에는 2002년 보다 더 즐거운 일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살맛나는 세월

사업회 부이사장 **문 영 희**
동아투위 위원장

전국 민주화운동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해방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저희 동아투위가 태어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뜻 깊은 2005년을 맞아 독립운동 정신과 민주화운동 정신이 민족정기의 양대 축으로 자리를 잡도록 이 정신을 국민 속에 더 깊이 심어주는 일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또 이 정신이 남북으로 더 널리 확산되어 간다면 우리 겨레는 좀더 빨리 하나가 될 수 있으리란 믿음도 있습니다.

아직 기념사업회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민주화운동가들을 지역단위로 묶는 일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가들이 서울·부산·광주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실천되는 올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기둥을 세울 차례

사업회 이사 **윤 순 녀**
천주교 성폭력상담소 평화의샘 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2기 이사진이 출범하였습니다. 1기가 초석을 놓는 데 애를 쓰시었다면 이제는 기둥을 만드는 작업에 힘을 쓸 때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은 사업회가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일들을 가시화시키고 우리 사업회의 상징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시민사회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 단체와의 연대사업도 보다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지금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념관 건립 또한 중요하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